

<④ 인터뷰 1 -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과학기술강국 및 인재대국 구현할 것”

대담 | 이덕환 \_ 본지 편집인



Q.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해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교육 개혁과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을 모두 책임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각오는?

먼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과 ‘과학기술’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책임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대 장관으로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그 이상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새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채택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대 전략 중 하나로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발전을 견인할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둘 것입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초기에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에 대해 우려의 의견과 다소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심으로 의지를 모아 조직 통합과 사무실 이전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 3월 13일에 통합된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개시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과학기술이라는 국가 발전의 양 날개가 창의적으로 결합하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선진 일류국가’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교과부의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Q.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될 수밖에 없는 교육에 밀려 홀대를 받지 않겠느냐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한 걱정일까요? 물론 교육과 과학기술의 통합으로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을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국가적 노력이고, 국민적 관심사항입니다. 당면한 교육 현안이 많아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투자 및 지원정책이 교육 현안에 밀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 또한 공과대학 교수인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선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 개발의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출연연구원도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선진국과의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늘리는 동시에 연구개발의 평가와 연구비 배분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재원 배분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 생긴 부처인 만큼 맡은 바 업무의 성격과 역할의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전 과기부가 총괄했던 업무들이 다소 분산되고, 교육부와 과기부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가 당면한 여건이 이전 정부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예산의 조정 및 배분·평가 기능과 같은 기존의 정책조정 기능이 분산·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과기부의 두 개 조직과 기능이 통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기능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수월성 중심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새로운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재개발과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의 확립, 대학-

출연연 간의 연계강화, 기초연구 지원의 체계화, 과학기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에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고, 초·중등 교육에서의 수학, 과학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지식기반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양성에도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과기부와 교육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강국 및 인재대국을 구현하는 것이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그렇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과학기술정책의 기초가 크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지난해 12월에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5년 간의 과학기술발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관련 공약을 반영하는 등 현시점에 맞게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한 과학기술 발전의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조를 정립해야 합니다. 미래의 경제·산업·인력 구조 및 기술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 및 기존 과학기술정책 평가 등을 반영하는 한편 분야별 추진 전략 및 로드맵을 도출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비전의 목표연도는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 우리 나라의 세계 일류 선진국 진입 시점의 추정, 미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2008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목표로는 과학기술국가전략 수립, 대학 및 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세계 일류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Q. 교육부와 과기부의 기능이 통합되면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기능이 좀 더 밀접하게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출연(연)의 역량을 제고하고, 창조적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의 대형화, 융·복합화 등으로 인

해 출연(연)과 대학의 공동연구, 교류·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면서 출연(연) 기능을 재정립하고, 대학연구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할 필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양자 간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결합되어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먼저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 추진방법, 연구단계 등 유형에 따라 양 부처의 기존 연구개발·대학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연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기능 조정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간 연구협력을 활성화하여 연구주체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연(연) 육성과 대학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 유동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대학겸임교수 발령, 출연(연)과 대학의 학과 공동 운영 등 다각적인 출연(연)과 대학의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인문사회-이공계 등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담당해야 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신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젊은 과학기술인력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입자율화와 로스쿨 등 현안과제로 인해 수월성 중심의 인력양성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은 일반 인력양성정책과 교육대상 및 방법, 정책 목표 등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었던 수월성 위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영재학교 지정 확대 및 대학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하여 과학영재 발굴,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KAIST,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을 중점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내외 석학 및 과학자 지원 방안을 통해 보다 우수한 인재를 폭넓게 유치할 것입니다. 20~30대 신진 연구자의 연구비 수혜율을 2006년 18.6%에서 2012년에는 25퍼센트로 확대하고, 해외 인력 유치·활용사업

을 통해 2012년에는 1천 명 규모의 해외 우수과학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Q. 특성이 전혀 다른 교육부와 과기부 관료들의 '화학적 통합'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각각 60년과 40년이라는 긴 전통과 상이한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온 두 집단이 물리적 결합뿐 아니라 화학적 융합을 이루어 한 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선 직원들이 가능한 한 자주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교육부와 과기부 직원의 약 36%를 상호 교차하는 인사를 실시하고, 인재정책실과 원자력국 등 양 부처의 대표적인 부서들이







같은 층을 사용하도록 배치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모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나아가 교육과 과학기술, 이 두 분야가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초로 진정한 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 장관님께서 서울대 재직당시 '공대 신사'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다소 험난한 공직사회를 잘 견디실지 걱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은 주어진 목표와 업무에 맞게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 '국민'이라는 고객을 대상으로 '정책'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교육과학기술부'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며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의무와 업무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간다면 목표한 바를 어렵지 않게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Q. 기존의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맡아오던 각종 회의, 행사 및 국회 등 일정이 대단히 바쁘실 텐데요. 건강관리는 ...**

장관직이 한 부처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자리이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스케줄이 많아서 별도로 건강관리를 위해 시간을 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대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바쁜 업무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 과학기술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께서는 우리 나라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계 모두가 합심하여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Q.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